



ISSUE BRIEFING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연구책임 나정호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294

연구진 이대성 전문연구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생활 물류(택배)를 활용한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은 방문 수거 불편과 차별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사업의 성공적인 물류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반값택배·신속배송이 가능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을 제안한다.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는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한 민관 협력 상생 모델이다. 소상공인, 농림 어가의 소량 화물을 규모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를 공동 활용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이 제안이 안정화되면 전북도민 누구나 반값택배·신속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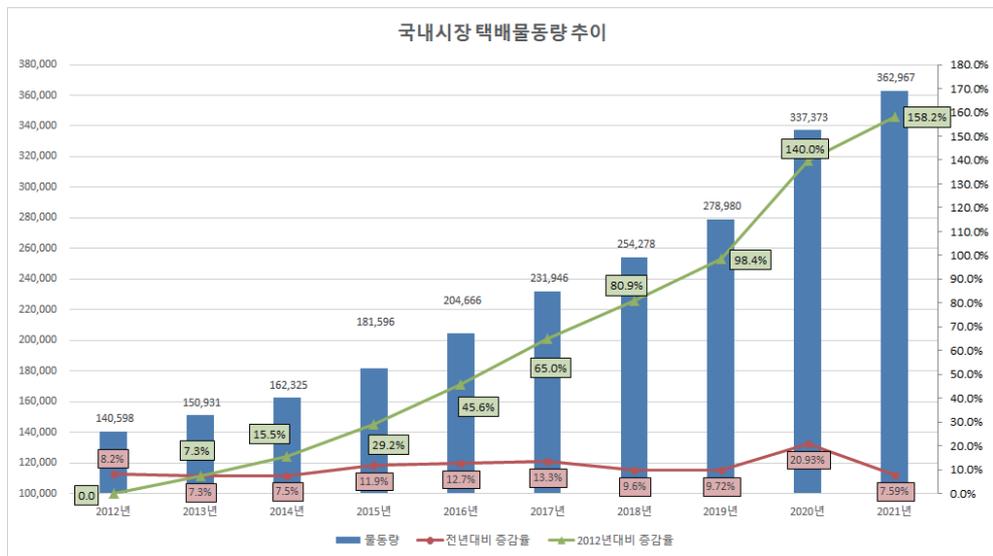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1 불편과 차별을 극복하는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필요

☞ (불편과 차별 극복) 농산어촌 생활 물류 불편과 차별

- 전자상거래와 생활 물류가 결합한 비대면 플랫폼 경제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생활 물류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중요한 물류 서비스라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국토교통부, 2022)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nlic.go.kr, 접속일: 2023. 12. 4.; 한국통합물류협회(연간발표)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 추이]

- 전북지역 농림어업인은 농수산물 비대면 판매에 따른 소득증대로 만족도가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물류 방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농협 등에서 계약 택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방문 수거의 구조적 한계가 극복된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택배비 인상에 따른 지역 농림어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됨
 - 방문 수거의 구조적 한계는 넓은 면적에 거주지, 생산지가 분산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인함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 택배 물동량 급증으로 대도시, 광역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중소도시, 농산어촌 마을의 소외 가능성이 있음
-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지역 소상공인 물류 지원 필요성

- 농림수산물 외에도 공산품, 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을 비대면 판매하는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소상공인도 생활 물류 관련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
- 연구진이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인터뷰 조사한 결과 일정 규모의 계약 물동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영세한 업체는 생활 물류와 부대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
- 비대면 판매에 따르는 물류 부대 업무는 포장, 라벨링, 택배 발송 등 업무인데 소규모 주문 처리를 위해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어렵고, 직접 이행하려니 업무 부담과 신속 배송에 경쟁력이 떨어져 대부분 물류기업에 위탁하고 있음
- 비대면 플랫폼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 동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력 강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함

(물류 혁신의 축적된 경험 공유·확산)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 성공사례 확산

- 전북 익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사업에 선정되어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실증하였음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는 익산시가 운영하는 농촌 마을 전자상거래 ‘익산몰’의 비대면 판매와 농촌 마을 거주 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택배 물류 지원 서비스를 의미함(전북연구원, 2023)

-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는 공공주도 퍼스트마일¹⁾ 공동수거 후 민간 택배사가 최종 배송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이며, 농촌 생활 물류 문제를 해소하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이용 농가, 택배사 모두 만족하였음
 - 농촌지역 공공주도형 생활 물류 서비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이행의 강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1) 생활 물류 서비스는 퍼스트마일(방문수거 후 지역 집화), 미들마일(지역거점에서 허브, 허브에서 배송지역 거점으로 이동), 라스트마일(배송거점에서 최종 배송 완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의 핵심 요인은 농가별 산발적인 물동량의 규모화에 따른 서비스 단가 인하와 공동 물류 서비스의 친환경성에 있음
-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의 성공 요소(플랫폼, 퍼스트마일 공동수거, 택배사 연계 등 노하우)를 전북지역 특성에 맞게 접목·확산하여 생활 물류 서비스 관련 불편과 차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음
- 대부분 기초지자체는 농림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단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됨
- 향후 대도시, 광역시에 집중될 생활 물류 서비스 네트워크와 상대적으로 소외될 농산어촌,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전북도민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과 달리 일정 규모의 물동량 확보가 가능한 도심지역은 물동량 규모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혜택 범위도 지역 농가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음

이슈브리핑 목적

- 이 글의 목적은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전북도민이 겪는 생활 물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 물류 서비스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 도입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음

2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 개념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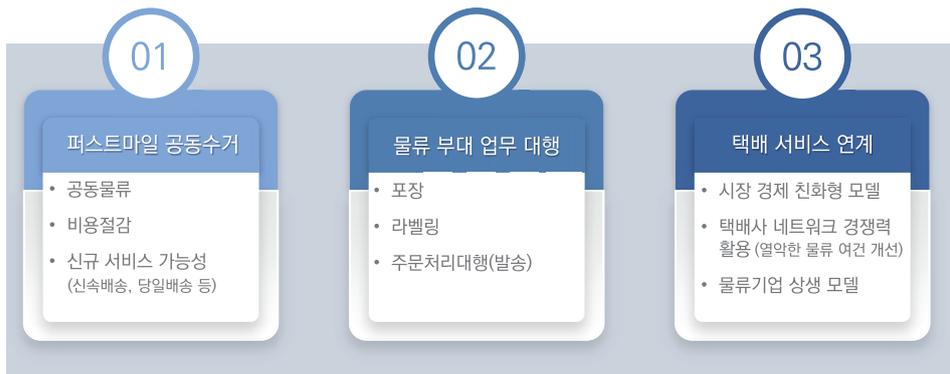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개념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는 ‘퍼스트마일 공동수거’, ‘물류 부대 업무 대행’, ‘택배 서비스 연계’로 규모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의미함

-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업체가 택배사가 담당했던 방문 수거를 대체함
 - 공동물류에 기반한 비용 절감, 친환경성 제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완화 등 물류 성과와 공익적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이 주문한 제품을 따로 분류하여 택배 허브로 보내지 않고, 바로 배송하여 신속 배송, 당일배송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음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 (물류 부대 업무 대행) 포장, 라벨링, 주문처리(발송) 업무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업체가 대행함
 - 물동량이 작은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를 확보하여 생활 물류 서비스에 필수적인 부대 업무를 대행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 되도록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정관에 규정된 전북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 물류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적절한 서비스 비용을 유지함
- (택배 서비스 연계) 민간 택배사 네트워크로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연계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지 않음
 - 이 제안의 취지는 시장경제 질서상 차별받는 지역, 영세업체가 보편적 생활 물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따라서 택배사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지역 물류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음



[전북형 물류 서비스의 핵심 요소]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의 범위

- (업무 범위) 물류 부대 업무 대행과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업무에 한정되며, 미들마일, 라스트마일 배송업무는 택배사가 담당함
 - 필수 서비스는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이며, 물류 부대 업무 대행 서비스는 희망하는 업체가 적정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임
 - 물류 부대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체 포장, 라벨링 등을 완료한 상태로 퍼스트마일 수거자에게 전달하면 됨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 (혜택 범위) 전자상거래와 생활 물류 연계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조업체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북도민에게 혜택이 확장될 수 있음
 - 초기에는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에 맞추어 서비스 영역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함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전북도민이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택배 화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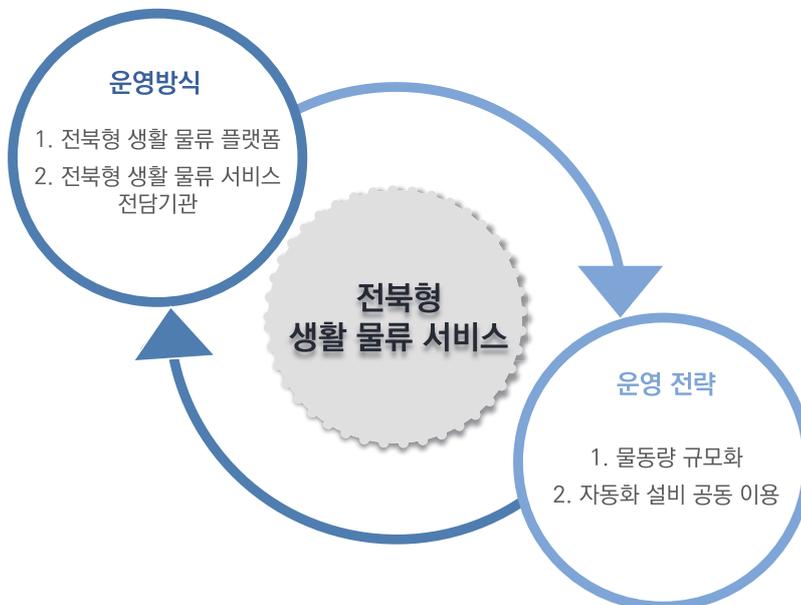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운영방식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의 운영은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지역 물류기업 또는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조직 중 전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공공 참여를 최소화함
- (전용 플랫폼)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문, 결제 등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이며, 이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음
 - 전용 플랫폼은 스마트기기 기반으로 오픈마켓(지역상품물), 택배사, 결제사 등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며, 축적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익산시 다이로움 물류 플랫폼 사례에서 농가가 수거자와 개별 연락·조율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만족요인으로 나타남(전북연구원, 2023)
- (전담 운영기관 선정) 퍼스트마일 공동수거, 포장, 라벨링 등 물류 부대 업무 대행을 전담하는 운영기관은 되도록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중 선정함
 - 택배사가 담당하는 일부 업무를 지역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함
 -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적정한 전담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음
 - 설립 정관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명시한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협동조합 등이 이상적이라 판단됨
 - ☞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물류 부대 업무 대행의 전문성 축적, 합리적 비용 산정, 안정적 유지와 장기적으로 전북도민에게 반값택배 서비스 혜택을 확산하려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 조직 형태임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운영 전략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운영 전략은 물동량 규모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업무 부담 경감임
- (물동량 규모화) 전북지역 이용자의 물동량을 규모화하여 대화주의 지위를 만들고, 이 혜택을 영세 이용자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임
 - 물동량 규모가 큰 이용자에게 택배사는 거래 물동량에 따라 특별히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개별 방문 수거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이자, 대규모 택배 물류 네트워크 운영에 안정적인 물동량을 공급해주는 대화주에게 부여하는 혜택임
- (자동화 설비 공동 이용) 물류 부대 업무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영세 이용자에게 물류 부대 업무 경감과 비용 절감 혜택을 부여함
 - 포장, 라벨링 등 물류 부대 업무는 전자상거래 연계 생활 물류 판매의 필수 업무이지만 업무량과 필요 공간 부담이 커서 영세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가 상용화되어 있지만, 개별 보유하여 운영하기에 비용과 공간 부담이 있음
 - 전담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공동 활용하면 물동량 규모화에 따른 포장, 라벨링 등 재료 단가와 택배비 인하 등 혜택을 연계하여 적절한 요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전북형 물류 서비스의 운영방식과 전략]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3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가.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의 차별성

시장경제에 부합한 민관 협력 상생 모델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은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구조적 한계로 불편과 차별이 예상되는 영역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지역사회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대안은 지속하기 어려움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연계 생활 물류 판매 체계가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
- 다수 소상공인의 물동량 규모화를 통해 대형 화주에게만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택배비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장기적으로 반값택배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음
 - 반값택배는 실제로 발생하는 택배비용의 50% 수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화물을 집화·규모화하여 가능함
 - ☞ 택배사 인터뷰 결과, 다수 화주의 화물이라도 일정 물동량을 초과하고 장기·안정적 이용을 담보할 수 있다면 대화주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별도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므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경제에 부합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은 전자상거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판매자, 소비자, 관리자, 택배사 모두에게 유익한 상생 모델임
 -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농림어가 택배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잘 될수록 다음 해 예산 부담이 커지는 구조임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은 기존 택배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분담하여 절감된 비용 혜택을 관계자 모두가 누릴 수 있음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 생활 물류 서비스 신속 배송 경쟁 트렌드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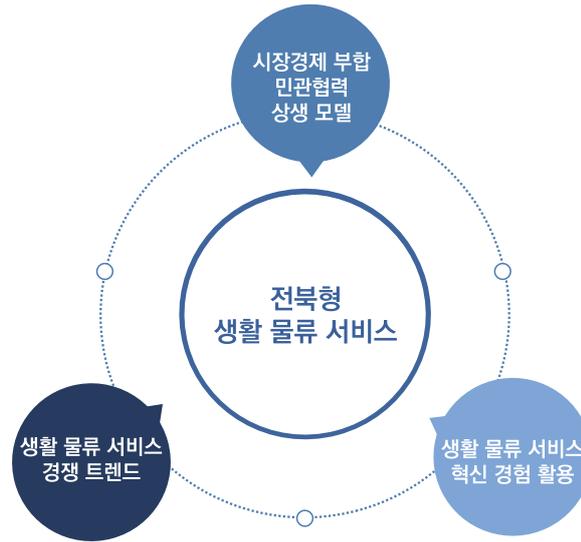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전담 기관의 택배 부대 업무 대행 모델이 안정화되면 판매제품의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생활 물류 서비스는 온라인 유통업체 중심으로 새벽 배송, 당일배송 등 배송 속도를 높이는 경쟁이 치열함
 - 신속 배송을 위해서는 주문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하며, 물리적인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예측, 풀필먼트²⁾ 등으로 대응함
- 전북도민이 주문한 제품은 택배사와 협의하여 미들마일 과정을 제거하여 비용 절감과 신속 배송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전북도민이 주문한 전북제품은 현행 택배 네트워크상 권역 거점과 중앙 거점에서 집화되어, 다시 배송권역 거점을 거쳐 전북도민에게 배송되는 구조임
 - ☞ 예: 전주시민이 전주지역 업체 제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주문하면 전주 → 대전·옥천 → 전주 방식으로 이동함(중간과정에 지역·권역 거점을 여러 차례 경유)
 - 미들마일 과정 제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 생활 물류 불편과 차별을 지역 물류 혁신 경험으로 해결

- 전북지역 생활 물류의 불편과 차별은 인구, 마을 여건 등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자연적 해결이 어려움
- 대도시, 광역도시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특성상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생활 물류 서비스의 불편과 차별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익산시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의 성공 경험을 활용하여 중소도시, 농산어촌 마을의 보편적인 생활 물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
- 농산어촌 지역에 특화된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 모델을 중소도시, 도농상생 모델로 확산하여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음

2) 풀필먼트(fulfillment)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 주문 제품을 포장해 배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미리 풀필먼트 센터에 판매자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음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전북형 물류 서비스 모델의 차별성]

나.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의 기대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증대 →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

- (지역 경제 활성화)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전북도민의 지역 제품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체계 기대
- (일자리 증대)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퍼스트마일 공동수거, 부대 업무 처리 필수 일자리와 매출 증대에 따른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물류 일자리) 직접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소수 인력보다 생활 물류 서비스에 따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음
 - 생활 물류 서비스 부대 업무는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여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므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불편과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됨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체 1,000개소(예시)에서 각 1명씩 추가 고용한다면 1,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물류 불편과 차별 해소 결과 창출된 일자리이므로 '물류 일자리'로 볼 수 있음
- (인구 증가) 물류 일자리에 따른 지역 인구 증가, 농산어촌 거주 인구의 유지, 귀농산어촌 인구 유입 등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음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 물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뿐 아니라 중소도시, 농산어촌 마을 불편 해소로 유지되는 거주 인구, 귀농산어촌 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까지 고려할 수 있음
- 농산어촌 특유의 환경적 강점에 생활 물류 서비스 편의로 거주 여건이 개선되면 귀농산어촌 인구의 적극적 유치 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함

☞ 생활 물류 서비스 빅데이터 정책 활용 가능

- 생활 물류 서비스 빅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 산업·경제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 지자체가 계약 택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대부분 택배사는 계약 물동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공유하므로, 지자체의 물류 데이터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음
- 제안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생활 물류 부대 업무,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를 위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연계 생활 물류 빅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함
 - ☞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 사례에서 공동 수거 차량의 이동 동선(거리), 품목별 물동량, 주문고객 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플랫폼 기반으로 수집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전북도민, 소상공인 만족도 증가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은 전북도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확산되는 공익형 사업임
- 전북도민은 저렴하고 신속한 지역 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개별 택배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수 있음
- 소상공인은 물류 부대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매출 증대에 따른 실질적 소득증대 혜택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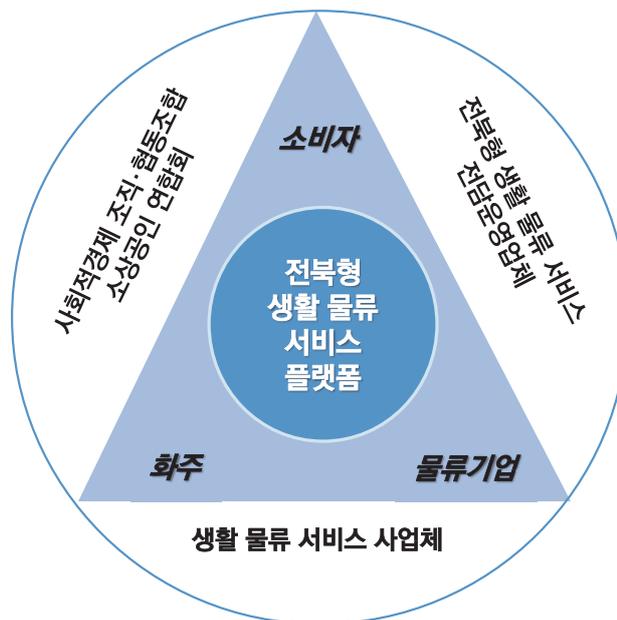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기대효과]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4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성

-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는 본원적 산업과 생활 물류 등 다양한 영역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다부처의 정책사업이 혼재되는 특성이 있음
-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전략 수립과 추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소상공인 연합회(화주), 유통·물류 분야 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전담운영업체), 생활 물류 서비스 사업체(택배사), 플랫폼(전자상거래, 물류 연동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해야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북생생장터,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산물 판매 플랫폼을 연계하도록 하여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음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 전략]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 활용

- 이 제안을 이행하려면 퍼스트마일 공동수거 집화에 필요한 물류센터, 친환경 화물차, 자동화 설비,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전용 플랫폼 등이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전담 운영기관의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관리에 비용이 발생함
- 초기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
-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의 취지가 지역의 물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과 실증에 있으므로 이 제안 사업을 이행하는 최적의 모델이라 판단됨
- 공모사업 없이 지자체, 지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려면 소관부서 설득과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며, 충분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초기 인프라 구축과 실증과정의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협력 거버넌스”가 공동으로 대응하면 전략 구상과 실증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안정화 지원

- 익산시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 사업은 향후 농산어촌 마을 소멸,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지자체 물류 혁신의 대표 사례임
- 실증사업 이후에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법·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전국의 농산어촌 마을이 있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 섬 지역 택배지원사업처럼 농산어촌 지역 불편을 해소하는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 제도화를 건의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527호)」 제29조에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규정하고 있음
 - 예: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을 “농어촌의 대중교통·물류 체계의 확충” 개정을 건의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참고문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nlic.go.kr, 접속일: 2023. 12. 4.

국토교통부. (2022b).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

나정호, 은성태, 정미선, 김민경. (2023). 전북형 물류 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전북연구원. (2023).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익산시 최종보고서. 익산시.

Half-Price Parcel Delivery and Express Shipping: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Strategy of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Jungho Na, Research Fellow

- The Necessity of Half-Price Parcel Delivery and Express Shipping: Proposal for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 Overcoming inconvenience and discrimination: With the sharp increase in parcel delivery volume, it is expected that investments will be concentrated in densely populated areas such as large and metropolitan cities, creating the possibility of neglecting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s well as rural villages.
 -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The ongoing consumer preference for non-face-to-face platform transactions highlights the need for enhancing the adaptability of small businesses—a crucial aspect of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 Sharing and spreading experiences in logistics innovation: By spreading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Iksan Logistics Service and integrating i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onbuk region, we can address inconveniences and disparities related to last-mile logistics services.
- Operational Strategy for Half-Price Parcel Delivery and Express Shipping: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refers to a sustainabl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last-mile logistics that is scaled through activities such as First-mile Collective Collection, outsourcing logistics support tasks, and integration with parcel delivery services to reduce costs and enhance environmental friendliness.

 - The operation of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is based on a dedicated platform, with a local logistics company, cooperative, or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elected as the exclusive operating agency, minimizing public participation.
 - The operational strategy focuses on cost reduction through the scaling of logistics volumes and alleviating the operational burden by collectively utilizing automation facilities that small businesses may find challenging to acquire.
- The Differentiating Features and Expected Effects of Half-Price Parcel Delivery and Express Shipping: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 Differentiating features include a market-economy-aligned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 adaptation to rapid delivery trends in last-mile logistics, and resolution of local logistics challenges through innovative experiences.
 - Expected effects include a positive cycle structure of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 job creation → population growth, the potential utilization of big data policies for last-mile logistics services, and the increased satisfaction of Jeonbuk residents and small business owners
- Introduction Strategy for Half-Price Parcel Delivery and Express Shipping: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 Aspects of the strategy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utiliza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digital logistics pilot project, and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s to efficiently introduce and promote discounted half-price shipping, express delivery, and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s

iSSUE
BRIEFING vol.294

Half-Price Parcel Delivery and Express Shipping: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Strategy of the Jeonbuk Last-mile Logistics Service

Jungho Na, Research Fellow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